

문장 3: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느냐의 여부는 우리가 도덕성의 의미와 인생의 목적에 관한 질문에 접근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.

그룹과 함께 문장 3이 얼마나 타당한지를 토론한다. 엘마서 30장 12~18절을 읽고 코리호어의 믿음이 도덕성과 삶의 목적에 대한 그의 관점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토론한다. 그런 후 다음 말씀들을 읽는다.



믿음의 행위는 보는 이들의 마음에서 비롯됩니다. 구주께서는 주위에 있던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. “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”(누가복음 8:8) . . .

리하이의 네 아들은 모두 훌륭한 부모에게서 태어났습니다. 믿는 이들에게 일어난 사건은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, 일어난 일에 대한 그들의 태도는 달랐습니다. 태도는 그들의 마음에서 기인했으며, 각 사람의 태도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믿거나 믿지 않기로 자유롭게 선택하게 했습니다. . . .

. . . [하나님께서서] 우리가 자발적으로 그분을 믿고, 그분을 받아들이고, 그분을 찾기를 선택할지 선택하지 않을지를 통제하실 수 없으십니다. 그분은 우리에게 손을 내미실 수 있으실 뿐이며, 우리가 손을 잡기를 선택한다면, 그분은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 저마다 필요로 하는 것을 향해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.(Bruce C. Hafen and Marie K. Hafen, *Faith Is Not Blind* [2018], 81, 88)



“도덕적 상대주의”는 이 시대에 팽배하는 강력하고 영향력 있는 사조로, 절대적으로 옳거나 그릇된 것은 없다는 사상입니다. 이 사상의 밑바닥에 깔린 전제는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거나, 만일 하나님이 계시다 하더라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될 계명을 주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. . . .

후기 성도는 확연히 다른 전제로 시작합니다. 하나님은 계시며, 영원한 율법의 근원이 되시고, 많은 선택 가운데 옳고 그름을 확립하도록 계명을 주셨습니다. . . . 우리는 도덕적 상대주의를 배격하며, 우리 청소년들이 이 사조의 거짓된 전제에서 나온 추론 및 결론에 속거나 설득되지 않도록 도와야 합니다.

다양한 제안이 진실인지 또는 용인할 수 있는 것인지를 판단하는 데 근간이 될 전제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? 우리는 경전과 현대 선지자들의 가르침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삼습니다. 이러한 진리를 대전제 및 가정의 토대로 삼지 않는다면, 우리의 결론이 참된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.(델린 에이치 옥스, “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”[총관리 역원과 함께하는 저녁 모임, 2013년 2월 8일])

(주: 전제란 여러분의 관점의 시작점 또는 기초를 의미한다. 가정이란 참되다고 전제하지만 참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)

다음 질문들에 대해 토론한다.

- 우리의 전제(시작점)는 우리가 질문에 답하는 방식에 왜 그토록 큰 차이를 가져오는가?
-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기본 전제로 삼아 질문을 재구성하면 어떤 차이가 생기는가?
- 하나님을 믿는 것은 선택의 문제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왜 중요한가?

이 토론에서 여러분이 배운 것을 바탕으로 문장 3을 수정하여 적어 본다. 수정한 문장 및 배운 것들을 반원들에게 나눌 준비를 한다.